

#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9호 【루게 제25332호】주제 105 (2016)년 7월 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김정은 각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국가외교정책에서의 당신의 활동이 우리 두 나라사이의 진실적인 대화와 호혜적인 협조를 확대하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안정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위 부 편

2016년 7월 5일

모스크바, 크렘린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에게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꽃바구니의 덩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적혀져있었다.  
이에 앞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후스텔로스 알렉산드르 아이에 초콜릿과 우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밤 비열 흥 핵산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캄보디아왕국대사관에서 꽃바구니를 드리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연합모임 핀란드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연합모임이 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되었다.  
모임 장소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그려져있었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핵무기실험위원회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의 기치높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모임에는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핀란드조선협회,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지국위원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칼베리 와르르만과 핀란드 조선협회의 위원장 예키 요르카세리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을 최우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역사적사건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회고위원회 결성식이 6월 23일 벨라리아 소피아에서 열렸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벨라리아 공산주의자당 위원장인 벨라리아조선연립회의 위원장 민코 민체브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주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회고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회고위원회가 6월 28일 이란이슬람공화국에서 열렸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제사업당 부총비서 마흐디 홀리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주에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회고위원회가 6월 27일 인도네시아농민근로자동맹정치사에서 열렸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디아공산당 전국위원회 비서 아를 판잔이, 부위원장들로 인디아인민혁명당 총비서 디. 피. 드라피타,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비제이 풀리, 인디아공산당(마르크스주의) 중앙

##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태양

외국의 벗들이 높이 칭송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주체의 영리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짐없는 경모심은 태양의 성지 만경대교황절을 방문한 외국의 벗들속에서도 불꽃이 울려나오고있다.  
로씨야연방공화국 모스크바위원회 대표로단 단장 니콜라이 주브릴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민의 칭송을 받으시는 김일성동지께서 이처럼 수순한 겹에서 탄생하시었다는것이 정말 놀랍다. 그것은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나라의 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이것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것을 다시금 느끼었다.  
민경대의 혁명전봉이 주된되고 계승되는 조선의 미래는 항상할것이다.  
카오스너서동맹대표단 단장 인바 완 재우분은 민경대교황절을 방문한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이것은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야 할 태양의 성지이라고 격찬하였다.  
베루의 깡바오일보사 사장 겸 책임주필 아브라함 라미레스 리우마는 베그인 나라를 방문한것을 나의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해방하시고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주의 나라를 건설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임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비핵화》 꾀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뿐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

핵이 없는 세상, 핵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것은 인류의 공동된 지향이고 염원이다.  
더욱이 수십년동안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공갈을 받으며 진정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우리 겨레에게 평화롭고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인계주시기 위해 온갖 크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으며 하시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시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유언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림 있는 의지이다.  
우리가 만단을 이겨내며 외세의 핵위협과 핵선제공격을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것은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었다.  
핵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강력한 핵억제력을 이겨내며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적대세력들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지닌 핵전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정책적립장을 명백히 밝히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은 의연히 우리의 핵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느니, 《북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풀릴수 없다느니 하는 태도를 견고하게 늘어놓으면서 내외외언을 심히 어지럽히고있다.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때 대한 우리의 진실적제언도 《선 북비핵화》라는 황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거부하고있는가 하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과 대화노력에 대해서도 《선 북비핵화》의 악성으로 정면도전해나오고있다.  
특히 박근혜당은 《선 북비핵화》를 만능의 구절방편으로 내세우고 여기저기를 분주히 써대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압박공조를 벌여대고자 하는 태도를 다 부리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비핵화의 분담을 완전히 전도한 어리석은 처사이며 명실상부한 핵전쟁자본이 자들의 구민대하는 정치는 덮어두고 우리의 핵포기를 강요해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북핵무기와 남조선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어있다.  
미국과 퍼피레당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악화시켜온 주범들로서 그 무슨 《북비핵화》에 대해 떠들썩한 홍보적인 자적도 세련도 없다.  
지난 세기의 50년대 조선전쟁때 원자탄공갈로 한집안, 한피줄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는 뼈아픈 고통을 가져다준것도 모자라 전후 남조선에 무려 1,000여개의 각종 전술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크고작은 북핵전쟁정면습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전대미문의 핵위협을 계속 가해온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 땅에 무시로 들쭉거리지는 무분별한 핵전쟁위협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선반도

에게 막대한 불행과 희생을 들먹인 미국에 대하여서는 단 한번도 핵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최대피해자인 우리에게 대해서만 핵을 내려놓으라고 강요하는가.  
이처럼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가장 광폭한 유린이고 영증한 침해가 아닌 말인가.  
미국과 퍼피레당을 비롯한 주체세력들이 끈질기게 들고나오는 《북비핵화》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통할수 없는 근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들의 핵우세를 지속시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욕을 가이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그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퍼피레당은 그 누구의 핵포기를 운운하기 전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체계적으로 방해해온 죄의 파지부러 실각히 들이켜보아야 할것이다.  
얼토당랴없는 《핵위협》과 《도발》의 갈무름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할 임박한 《북비핵화》를 떠들썩하고 정면도전해나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제손으로 푸는 길로 나와야 한다.  
그 길은 《선 북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공갈의 근본부터 완전히 제거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수십년세월 무고한 우리 민족, 우리 겨레에게 온갖 위협과 공갈을 가해온 침략의 핵이 선자적 제거대상이며 나아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쟁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미국과 퍼피레당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있다.  
이것이 현재해결의 순리와 고 순차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비핵화에 입담의 관심이라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으로구부러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주제 105(2016)년 7월 6일  
편 양



#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이룩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김정일

## 한평생 포전길 걸으신 수령님 인민은 못 잊습니다

7월의 조국청사에 그리움이 뜨겁게 사들여 흐른다.

푸른 주단이 펼쳐진듯 한 아득한 협동밭에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집전집을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승리의 통장홍을 부를 결의 드높이 포기마다에 정성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농업근로자들의 가슴가슴에도 한없는 그리움이 물결친다.

지금도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지극한 모습을 추억 하느라면 그이를 모시고 농업부문에 서 오래동안 일해온 한 일꾼이 눈물 속에 흘러주던 지킴이 못하진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치며 되새겨진다.

그날은 주제83(1994)년 7월 7일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집무는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기 하루전날 이른 새벽에도 계속되었다.

어느덧 오전 10시가 되었을 때 한 일꾼은 그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꾼에게 지도에 표시된 어느 한 지수지를 가리키시며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었다.

일꾼의 얼굴은 금시 밝아졌다. 그 전날 그에게 호수가에 나가 낚시질이라도 하시면서 정찰인 파로를 추사야 한다고 말씀했지만 종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꾼의 기쁨은 순간이었다.



연백섬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 있다. - 배천군 수원협동농장에서 -

낚시질을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일기예보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이 물에 잠기게 되고 인민들이 문물벼룩을 입 울수 있으므로 현지에 나가서 수위와 제방상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피곤이 복 싹인 그의 음성들 들으며 일꾼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를 바라보시며 너그럽게 웃으시다가 우리 후계 좋은 날을 위해서 낚시질을 하자고 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약속만은 꼭 지켜주시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은 팔네 이루어질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킴이 못하진 약속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 나라 인민모두의 가슴에 한생의 아픔으로 못박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까지 년로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경제부문 책임일꾼의 역할을 지도하시며 나라의 경제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던 가슴뜨거운 화복을 영원히 잊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7월 7일에도 농사문제때문에 그토록 눈물겨운 일화를 남기신날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전국의 초경정에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도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농사문제때문에 자신을 다 바치셨음을 인민이며, 후대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수령님의 한평생은 끊임없이 인민들을 찾으시는 현직지도의 한평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못 잊을 그리움에 포전길을 걸느라면 농장원들도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땅 저까지 지는 저리까지 수많은 농장을 찾았으셨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가슴에 물결처럼 어려오고 일 곡생산량을 늘여 우리 나라를 살기 좋은 사회주의국으로 꾸려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차고 힘찬 음성이 지평선너머서 흘러 오느라였다.

우리 인민을 잘 먹고 남루럽지 않게 내세우실것, 이것이 한평생 이슬에 옷차락 마를새없이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사일에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별천이었다.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농민들의 보다 유족한 생활을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농장원에 갇힌 어버이수령님의 현직지도의 자욱마다에 새겨진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은 그 얼마나 값고맙은 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제 83(1994)년 6월에 찾으신 온천군 금당리사람들이 7월의 나날에 눈물 적시며 추억하는 사연도 농촌의 발전 력사의 길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하얗은 사랑의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전후 정세가 그토록 복잡한 시기가 없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온천을 찾으신어 기 양민들의 용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을 잘 먹이기 위한 길인데 무엇을 가리겠는가, 길 없으면 우리가 이 간척지에 밭길을 내자고 하시며 수천정보의 옥밭을 찾아주시던 가슴뜨거운 사연도 바로 온천땅에 새겨진 이야기이다.

온천군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현직지도의 수가 100여차나 된다고 하니 나라의 농사일을 위해 기울 이신 그의 심혈과 로고는 정정 얼마나 끈겼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온천군 금당리 를 찾으신것은 20여년전의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다우기 하늘에서는 파가 새 바람이 내리쬐고 이리저리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 소리지르던 저까지 휘날아올라 잠시 서있기만 해도 숨이 막혀왔다.

이런 날씨가 넘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일요일의 휴식을 마다하시고 로전길에 계시는것이 너무도 의송스러워 일꾼들은 이렇게 바랄까한 날씨가 되셨는지 모르겠다. 어찌 온천땅에만 새겨진 이야기라고 하랴.

수령님께서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살림집을 짓기 위하여 온천군 금당리사람들에게 행부한 생활을 마린 해주시라 베풀어주시던 사랑 얼마나 뜨거웠었었던가.

언제인가 농장의 한 작업반장을 만나시고 그의 가정형편과 농장원들의 살림문제, 양과와 현금분배 정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친어버이사람을 기를 이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금당리에 학아소와 유치원을 지어주며 학교 교실에는 기와를 띄워야 한다고 세심히 일깨워주시셨을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용배까지 보내주시고 금당리농장원들의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재도 품소 풀어주시지 않으셨던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 수령님께서 포다시 찾아오시며 농사문제때문에 마음쓰시던 금당리사람들은 눈물을 뜨게 하시었다. 하지만 이들도 그때 다는 알수 없 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온천법을

한평생 하느라면 여기고 언제나 인민대중에게 돌아가시며 그들과 고향을 같이하신 우리 수령님의 마지막날까지도 농장이었으니 세상에 나라가 없고 나라마다 영도자국이 있다지만 그 어디에 우리 수령님과 같이 그처럼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가 또 있었는가.

수천년 꿈속에서 바라던 인민의 별원을 하루빨리 실현시켜주는것을 자신의 가장 큰 념원으로, 필생의 사명으로 결의하시고 포전길에 승교한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어버이수령님.

정경 한평생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쓰시며 자신의 자욱자욱을 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이 온천군 금당리만이 아닌 이 나라의 농촌마다에 새겨져있어 7월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그리움의 날라 날라, 뜨거움의 날라로 더욱 깊이 새겨지는것이라.

그렇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도 농장밭에 계신다.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를 받들어 율해농사에서 통장군을 불러오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만통년으로 안아오라고 당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령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오늘 조국의 협동밭이 그리도 세차게 끓어 먼지는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선택 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현수령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이 넘쳐흐르 기때문이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받들어 경애하는 현수령님께서 빛내어가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쌀로써 굳건히 만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 몸소 농업과학자가 되시여

우리 인민을 잘 먹고 남루럽지 않게 내세우시며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속에 오렌 세철 사람들의 버림속에 갈대 만이 무성하던 시혜간척지를 옥토로로 전환시켜주시던 가슴뜨거운 이 이야기도 새겨져 있다.

한여름의 푸르기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재하신 58(1999)년 7월 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연우소의 시험포전을 찾아주시었다.

그곳에서는 간척지논의 소 급기름을 가져내기 위한 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 었다. 올방이는 가슴을 안고 한말 속에 담겨와 인사를 드리는 농업과학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수로로 친한히 걸음을 옮기 시었다. 잠시후 축정이 시작되었다. 어느덧 세는 중천에 떠오르 고 뜨거운 목양은 그날 한점 없는 간척지밭을 활짝 밟고 있었다.

배수로쪽에 허물없이 앉으시 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목소리가 흐르는 밤으로 하여 축축이 젖어붙 었다. 1분, 2분, 5분...

간척한 한호찬호가 흐르는 속에 드디어 축정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간척지밭에 펼쳐질 황금미작 실례이는 벼바다를 그리보시는 듯 위대한 수령님의 인왕에는 기쁨의 미소가 한껏 어려

시함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없 었다. 오늘날도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서해간척지에만 새겨졌다고 하라.

정적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 방법을 찾으시려고 저력시험포전에서 농작물도 손수 가꾸시고 온 나라의 모내기와 가을걷이, 새 품종육성이 넘쳐나기 시작되던 때에 이르러서야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직지도의 자욱마다에 새겨진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은 그 얼마나 값고맙은 것인가.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 국제김일성상을

로씨야인사에게 수여하기로 결정

국제김일성상사회가 지난 4월 저명한 문필활동으로 강 령한 로씨야인사들과 세계적주 화위원, 나라들사이의 평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 계화하는 일과 같은 모든 일 을 다 프락토르로 하여야 한다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 가 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그대 가 문건직위와 직업에서 배방 된 우리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도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었다. 《김일성동지의 환생은 인민원들을 잘 돌보아줌으로써 그대 가 사상과 결심에 구별 하여 힘으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승교한 한평생이었다.》

주제 51(1962)년 1월 위대한수령님께서 신천군인대의 농촌경리 사업과 관련한 회의 회를 지도하여주시던 때의 일이다.

회의에서 이북 농 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는데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 계화하는 일과 같은 모든 일 을 다 프락토르로 하여야 한다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 가 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그대 가 문건직위와 직업에서 배방 된 우리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도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었다. 《김일성동지의 환생은 인민원들을 잘 돌보아줌으로써 그대 가 사상과 결심에 구별 하여 힘으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승교한 한평생이었다.》

주제 51(1962)년 1월 위대한수령님께서 신천군인대의 농촌경리 사업과 관련한 회의 회를 지도하여주시던 때의 일이다. 회의에서 이북 농 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는데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 계화하는 일과 같은 모든 일 을 다 프락토르로 하여야 한다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 가 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그대 가 문건직위와 직업에서 배방 된 우리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도록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 들은 편하던 나보고 편안히 앉았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부터 농사일을 단단히 짜고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일꾼들의 간절한 그 꿈을 같이 사양하시었다. 율해 사람들은 80이면 여생을 권 안히 보낼 나이라고들 한다.

토지개혁된 첫 봄날에

한여름에 강조하신 문 제

흥뜻한 대풍에서 찾으신 기쁨

저를밤 묵어가신 농촌살림집

농민들을 힘으로 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

국제김일성상을

로씨야인사에게 수여하기로 결정



#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시켜

### 평양시 당 위원회에서

7월 8일이 다가오고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 김수산대양궁전을 순례히 우러르고있다. 이 땅에 생을 온 남대조선 모두가 주체의 영원한 태양,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를 철저히 그리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거 22회를 즈음하여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과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철석같은 혁명업적을 빛나게 계속완성하여야 한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선사적업적과 혁명사적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정신을 기르고, 혁명적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선사적업적과 혁명사적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정신을 기르고, 혁명적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철석같은 혁명업적을 빛나게 계속완성하여야 한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선사적업적과 혁명사적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정신을 기르고, 혁명적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철석같은 혁명업적을 빛나게 계속완성하여야 한다.»

## 현 지도도 단위들이 선봉에

첫 일과

강계청년학생 3호반 선 소년원들에게는 하나의 굳이 지 일과였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강계청년학생조 조영민동지는 어머니 수령님을 위하여는 물소 조영민을 끌어주시고 발진기의 시동장치도 돌려주시며 발진기손잡이에서 나오는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종업원들은 매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이 깃든 영웅발자취를 찾아 그들의 영광을 힘차게 관철해갈 마음속의 불꽃을 다시 활활이 시작한다. 3호반선소에서 전격중신의 동영이 나날이 높아가고있는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셋 일과! 바로 이것을 통해서 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대단 가지는 어머니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의 영광을 빛나게 관철해갈 이토록 종업원들의 비상한 의지를 뜨겁게 엿볼수 있다.

비약의 지름길

함흥도청공장에서는 비약의 불비방이 일고있다. 그 비결을 풀면 풍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불멸의 업적을 깊이 전하는

혁명의적정신을 가라린다. 지금으로부터 55년전 물소리처럼 쏟아진 그대로부터 어머니수령님께서서 공장을 위하여 찾아오시며 나아가 길을 활하게 밟아주시었다.

어머니수령님의 유혼은 언제나 봉양인들과 노동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위대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수일에 의존해야 한다는 어느 한 염색기의 부분품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유혹판의 불꽃속에 공장은 비약의 지름길을 활하게 달려왔다.

그러나 어머니수령님의 유혼을 철저히 관철하면 비약의 지름길이 열린다는 이력도 통째로 불꽃의 신념과 의지는 얼마나 고결한 것인나.

포전길

얼마전 우리는 온천군 금담 협동농장을 찾았다. 수지는 마당길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유성이 들려오는듯하고 푸른 벌을 바라보아도 80고령의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처럼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뜨겁게 새겨들었다.

포전에서 만난 청년보조장

김계청년학생 3호반 선 소년원들에게는 하나의 굳이 지 일과였다.

## 속천군 당 위원회에서

### 회고록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우리 혁명의 만년제 부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를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 일제하가 되는 숙청군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지향은 남아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시당의 기동예술선대의 예술소조에서는 《수령님 탄고용상 못 잊습니다!》, 《영원한 그이소》, 《포전길 걸을 때면》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는 노래들을 민영한 공연활동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주체의 빛날로 내 조국땅에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얻어주시고 강성변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정세의 애국자의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 주셨다.

어머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머니수령님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는데 힘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회고록을 우리의 교과서로 삼고, 혁명적정신을 기르고, 혁명적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 혁명의 만년제 부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를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 일제하가 되는 숙청군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지향은 남아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 회고록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우리 혁명의 만년제 부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를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 일제하가 되는 숙청군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지향은 남아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 영광의 일터에 넘치는 창조적 숨결

순천구 두공장을 찾아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순천구두공장, 영광의 일터에는 또 어떤 자랑이 꽃피고있는 것인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신념과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들 공업인들은 먼저 혁명사적교양실로 들어갔다. 혁명사적교양실에는 수십년전 순천구두공장을 찾아오신 어머니수령님의 사친문헌을 정중히 모셔져있다. 저너쪽 자들이 시집장가며 고공주부를 신겨보내는데 자신의 정성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공업적방법으로 구두를 생산하게 되었으니 소원이 풀렸다고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친문헌을 우리들속 한평생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자신의 그 고고와 어머니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도의 받쳐주도 어려웠다.

어머차에 걸친 공장에 새겨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의 자욱자욱을 다시금 새겨보면서 우리는 생산현장에

## 대중발동에서 찾아진 묘리

전천착암기공장 초급당 위원회에서

공작공장을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와 경애하는 천수만대 위상을 드린 자랑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공작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와 경애하는 천수만대 위상을 드린 자랑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공작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와 경애하는 천수만대 위상을 드린 자랑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공작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와 경애하는 천수만대 위상을 드린 자랑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힘있게 받들고 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본사기자 김진영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한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이 6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직맹인군들,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족최대의 주모의 날에 즈음하여 500만 청년전위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청년운동의 강령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버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품어키고 어머니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인민주권위업수행에서 국적인 전위들이 일어난 지난 세기의 걸작미담에는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여오신 철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업적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고 강조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변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주셨으며 한 세대에 두 세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시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내며 수령님께서 이 땅위에 자주, 지립, 자위, 사회주의

청년 전위들의 맹세모임 진행

강국을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한 청년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혁명명도의 전기간 청년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며 우리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부대를 마련하시고 주체적청년운동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었다고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밑에 력사에 부패없는 고난과 시련을 뜻깊이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위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칠수 있었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그들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고결한 도덕적리념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전투에 높이 모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이 이 땅에서 빛나는

현실로 꽃피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척후대, 당의 믿음직한 상속부대로 내세우시고 세상에 불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높이 펼쳐나가도록 격려했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고 그들은 말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인군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대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끝없는 공적정신과 영웅적인 투쟁정신으로 백두의 행군에 높이 모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승고한 사명과 도덕적리념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유인 중심, 명도의 유인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선군단결의 성애, 방패가 되고 500만의 총족단이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할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청년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외 결정관행을 위한 오늘의 전인민적 총진군의 앞장서서 자강력적 입주의기치높이 새로운 영웅청년시대를 힘있게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대오안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인적영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5대교양을 힘있게 벌여 동맹원들을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청년동맹을 영원한 수령의 청년조직으로 다져나가기에 다가오는 김일성사위주의청년동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했다.

모임에서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직맹인군들, 로동자들,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주영길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금성드라프트공장 직맹위원장 박명국,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로동자 박형진이 결의문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조국과 혁명,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마쳐오신 결속한 수령, 철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품어키고 어머니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한없이 고매한 품위를 지니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며 무자애의 혁명전진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영도하시으로써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었으며 오늘날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결한 충정에 떠받들려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직맹인군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대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한평생을 마쳐오신 결속한 수령, 철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품어키고 어머니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한없이 고매한 품위를 지니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며 무자애의 혁명전진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영도하시으로써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로 했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도 있다는 철리철심장있게 새기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선군단결의 성애, 방패가 되어 목숨으로 보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과 혁명발전의 위대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불어주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불구름을 없애나가기 위한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그들은 말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남김없이 펼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한 내맹원들의 회고음악회 진행

심혈을 다 바치신 철세의 애국자 어머니 수령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격조높이 집중하였다.

위인칭송의 노래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땅히 주시고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복속에서 휘둘러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감지 못해 하였다.

2중창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시와 노래 《우리의 신념》, 5중창

회고음악회 진행

《사랑의 빛날》 등의 종류들을 통하여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 땅에서는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있음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당 제7차대외 결정관행을 위한 총진의 200일전투에서 혁명적분투를 다해갈 결의 참가자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계부문 인군들, 함주군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비명길 농군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함경남도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세계 자주화위업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모임이 6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인군들, 함주군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비명길 농군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함경남도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세계 자주화위업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모임이 6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인군들, 함주군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비명길 농군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함경남도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세계 자주화위업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모임이 6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인군들, 함주군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비명길 농군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함경남도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세계 자주화위업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모임이 6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인군들, 함주군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비명길 농군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함경남도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세계 자주화위업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모임이 6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인군들, 함주군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비명길 농군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함경남도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세계 자주화위업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6일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신 철세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씨가 되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라.》

일찍이 10대의 어린시절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어머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품어키고 어머니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한없이 고매한 품위를 지니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며 무자애의 혁명전진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영도하시으로써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6일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신 철세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씨가 되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라.》

일찍이 10대의 어린시절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어머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품어키고 어머니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한없이 고매한 품위를 지니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며 무자애의 혁명전진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영도하시으로써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리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같은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어머니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영생추원의 마음을 안고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융족되어있는 신의주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도청보양소건설 등 수 십개나 되는 중요대상건물을 총경의 200일전투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대중의 정성력을 총동원시키면서 건축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명도 자욱이 어려있는 력원기계원적 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 구상방직공장을 비롯한 명도업적 단원들이 아닌 도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저장한 혁명실력으로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리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같은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어머니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영생추원의 마음을 안고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융족되어있는 신의주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도청보양소건설 등 수 십개나 되는 중요대상건물을 총경의 200일전투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대중의 정성력을 총동원시키면서 건축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명도 자욱이 어려있는 력원기계원적 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 구상방직공장을 비롯한 명도업적 단원들이 아닌 도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저장한 혁명실력으로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리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같은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어머니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영생추원의 마음을 안고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융족되어있는 신의주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도청보양소건설 등 수 십개나 되는 중요대상건물을 총경의 200일전투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대중의 정성력을 총동원시키면서 건축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명도 자욱이 어려있는 력원기계원적 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 구상방직공장을 비롯한 명도업적 단원들이 아닌 도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저장한 혁명실력으로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리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같은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어머니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영생추원의 마음을 안고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융족되어있는 신의주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도청보양소건설 등 수 십개나 되는 중요대상건물을 총경의 200일전투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대중의 정성력을 총동원시키면서 건축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명도 자욱이 어려있는 력원기계원적 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 구상방직공장을 비롯한 명도업적 단원들이 아닌 도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저장한 혁명실력으로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리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같은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어머니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영생추원의 마음을 안고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융족되어있는 신의주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도청보양소건설 등 수 십개나 되는 중요대상건물을 총경의 200일전투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대중의 정성력을 총동원시키면서 건축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명도 자욱이 어려있는 력원기계원적 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 구상방직공장을 비롯한 명도업적 단원들이 아닌 도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저장한 혁명실력으로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 해주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6일 해주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배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잡모사적선박 《에버브라이트》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체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정치철로이신

해주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6일 해주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배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잡모사적선박 《에버브라이트》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체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정치철로이신

해주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6일 해주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배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잡모사적선박 《에버브라이트》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체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정치철로이신

해주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6일 해주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배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잡모사적선박 《에버브라이트》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체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정치철로이신

해주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6일 해주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배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잡모사적선박 《에버브라이트》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체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정치철로이신

해주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6일 해주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배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잡모사적선박 《에버브라이트》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체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정치철로이신

해주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6일 해주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배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잡모사적선박 《에버브라이트》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체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정치철로이신







